

음심을 음심으로 제도하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7)

음녀(淫女)를 교화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내국에서 여름 안거를 하실 때였다. 묘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음심(淫心)이 많은 여인이었다.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지라 부처님께서는 난타를 데리고 가끔 그녀의 집을 찾아 걸식했다. 하지만 음심이 많은 그 여인은 부처님을 공격하지 않고 난타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난타를 보는 날이 점점 많아지자 그녀는 생각했다. “난타 비구가 나를 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무엇이든 다 공양할 텐데.”

부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난타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난타는 그녀의 집에 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부처님은 혼자 여인의 집이 있는 마을로 가서 3월 동안 금빛 광명을 놓으며 제천과 사람들을 제도하셨지만, 여인은 부처님께 관심이 없었다. 다음날 부처님께서 다시 난타를 데리고 나무 아래서 거닐고 계셨다. 여인은 난타 비구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달려와 난타에게 갖가지 공양물을 올리고 예배했다. 그러자 난타가 말했다.

“그대는 부처님께 먼저 예배하십시오.” 여인은 난타를 연모하는지라 난타가 이르는 대로 바로 부처님께 예배했다. 부처님께서도 신령으로 더 젊고 수려한 장부를 만들어 여인 앞에 세웠다. “나는 천인으로,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내려왔소.”

그러자 여인은 이번엔 장부에게 음심을 품기 시작했다. 여인은 장부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했다. “장부시여, 지금 저의 이 집은 공덕천(功德天)과 같아서 재산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보배로 잠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몸과 노비를 받들어 올리고 집안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원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드릴 것입니다.”며 장부를 유혹했다.

장부가 여인의 뜻을 받아들여 여인의 집에 들었다.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하루 낮 하룻밤이 지나는 동안 장부와 함께 있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다.

그러나 이틀째가 되자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흘째가 되자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집에서 갓 장부는 여인을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았다. 여인은 싫증이 나고 후회스러워 말했다.

“이제 장부가 싫증이 나서 보고 싶지 않으니 내 집에서 나가시오.” 장부가 말했다.

“우리 선세의 법에는 한 번 여인과 정을 나누면 열이들이 지나서야 비로소 쉬도록 되어 있소.”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워 말을 잊지 못했다. 장부는 여인을 품고 놓아주질 않았다. 나흘, 닷새...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여인은 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울면서 생각했다.

“정반왕의 아드님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한다 하던데, 어째서 나는 구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한 뒤 한탄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책망했다.

“오늘부터 나는 죽기까지 색욕을 탐내지 않으리라. 차라리 호랑이나 사자 등 무서운 짐승과 한 방에 있을지언정, 이런 고통은 받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집을 나가려 했다. 그때 장부가 말했다.

“이 번덕쟁이 나쁜 여인아, 부모와 종진이 나를 집안 하나 거느리지 못하는 사내로 꾸짖을 것이니, 나는 이제 너와 함께 몸을 합쳐 일찌감치 죽는 편이 낫겠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더니 그때서야 부처님을 알아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몸에 붙은 뼈를 감추려 했다. 무명천으로 가리고 향으로 냄새를 감췄으나 시신의 고약한 냄새는 어쩔 수 없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했다.

“여래의 공덕과 자비는 한량없다 들었습니다. 만약 이 고통을 여에게 해주신다면, 불법에 귀하겠습시다.”

곧 부처님은 신력으로 여인의 몸에서 냄새나는 뼈를 거두어주셨다. 여인은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삽화 · 강병호

“이 귀찮은 사람 같으니. 죽고 싶거든 당신이나 맘대로 하시오.”

그러자 장부가 여인을 안은 채 칼로 제 목을 찌르니 피가 여인의 몸을 덮어 놓아주질 않았다. 여인이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바둥을 쳤으나 이미 장부는 숨을 거두고 장부 시신은 여인의 몸에 꼭 붙어버렸다.

이들이 지나자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검어졌으며, 사흘째가 되자 통통 부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나흘 만에 시신이 여인의 몸으로 무너져 내리니 여인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레가 되었을 때, 모두 무너져 내리고 앙상한 뼈만 남아 여인의 몸을 붙들고 있었다. 여인은 괴로운 마음에 서원을 했다.

“여러 천신과 신선이시여, 정반왕의 아드님이시여, 저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면 제가 가진 이 집과 값진 보배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난타를 데리고 여인의 집으로 갔

부처님께서 여인을 위해 주원하니 여인이 주원을 듣고 기뻐할 때 여인은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 (《관불삼매해경》 7권에 나온다.)

《경률이상·동국대역경원》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ihollo@fyunbul.com

※공덕천(功德天)이란... 공덕천녀(功德天女)를 말하는 것으로, 중생에게 복덕을 주는 여신이란 뜻으로 본래는 바라문교의 신이었으나 불교에 도입됐다. 김상천녀(吉祥天女)라고 하며 아버지는 덕차기, 어머니는 귀자모, 비사문천의 누이동생 혹은 부인이라고도 한다. 그는 큰 큰 공덕을 성취하여 그 대공덕을 중생들에게 베풀어준다고 하여 어려운 재인이 있을 때 소액(消災)을 위한 기도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는 ‘공덕천도량(功德天道場)’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복록 비사문천(毘沙門天)을 주처로 하며 미래에 성불하여 길상마니보생여래라고 이름한다. 그 형상은 일정하지 않으나 천의(天衣)를 걸치고 왼손에는 여의주를 받들며 오른손은 시원인(施願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으며, 하업좌 위에 앉았다. 관자재보살의 화신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금강계 다섯 여래의 하나로 보생여래의 분신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⑦



생명의 소중함을 늘 마음속에

새끼 잃은 말

일요일 아침,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말(馬) 주인이 애를 먹고 있다. 거의 매일 타던 말이 주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물 경기가용 말이다.

주인이 아무리 쓰다듬고 애를 써도 말은 주인을 태워주지 않는다. 이유를 모르는 주인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왜 그러는 걸까. 고민 끝에 주인은 외국인 동물 심리 치료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과거된 치료사는 말의 이곳저곳을 살핀다. 쓰다듬어 보고 끌어안아 보기도 한다. 치료사는 말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치료사는 말이 지금 견디기 힘든 슬픔에 젖어 있다고 말한다.

말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새끼를 낳았고, 무슨 이유인지 새끼는 죽고 말았다. 어미 말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사실을 알게 된

아닙시고, 자신을 생각해주는 이와 주고받아야 하는 마음 또한 인간만이 가진 마음이 아님을 말해주는 말과 말 주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함부로 살았던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우리 못지않음인데 어찌 사람 몸이라고 우쭐할 것인가.

오늘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으로 텔레비전 속의 말에게 말했다.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슬픔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모든 생명은 서로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낄 때 세상은 한 층 더 아름답고 평안하리라. 모든 생명은 말로 다 할 수 없음이다. 사랑하고 사랑하자. 관세음보살.

광명진언을 외며

연꽃모양의 야외 법회가 있던 날이었다. 법회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에 들렀다. 휴게소에는 각종 차들로 북받았다.

그 중에 닭을 가득 실은 트럭이 눈에 띄었다. 칸 칸이 실린 수많은 닭들의 눈빛을 보았다. 서로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꼬꼬 소리를 내고 있었다.

죽으러 가는 길인 것도 모르고 있는 닭들을 보면서, 사람이란 동물은 이렇게 산목숨 앞에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고 단지 ‘먹을 것’으로만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미안한 일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광명진언을 외었다.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그래도 다음 생은 적어도 닭이 아닌 인간으로 복된 삶을 만나라고 저렇게 많은 닭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앞길은 운명을 가진 것이 사람이고 보면 사람 몸 받은 것이 마냥 좋아만 할 일도 아니요, 함부로 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업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그것을 아무런 생각이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찌 할 수 없음’의 안타까움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해 본다면 결과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들 삶의 과정이 좀 더 불법(佛法)에 가까워지리라 생각한다.

그런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의 차이는 ‘자비’와 ‘무지’라는 큰 차이를 낳게 된다. 죄를 짓더라도 알고 짓게 되면 ‘자비’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자비에 대한 생각을 하다보면 그 마음이 언젠가는 다른 곳에 쓰이게 될 것이다.

죄가 되는 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혹에서 깨지 못함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도 내 몸 지키기 위해 먹는 다른 생명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불법에 귀의한 사람이라면 생명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함이 옳을 것 같다. 늘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만큼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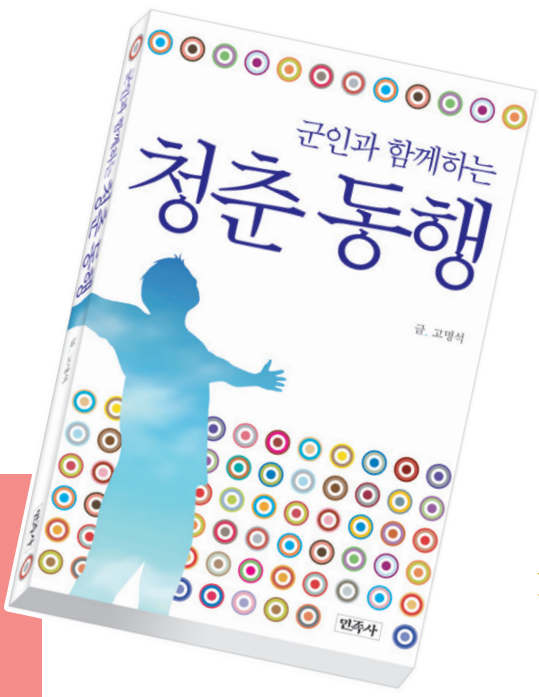
부산 연꽃모임회장

즐거운 병영 생활 마음수련 지침서!

어떻게 2년을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

나를 억압하는 시간이 될지,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 될지 그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청춘
-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장병
- 군 생활 2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장병
- 장병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군법당에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을 보냅니다.

군법당은 모두 143개 입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법당 300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고명석 글 | 176쪽 | 9,000원 | 사륙판(125×187mm)

세상 끝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스님의 편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온전한 삶의 지혜가 답답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기막히게 아름다운 아침의 꽃이라도 헤가지면 시드나니, 명리 사람들이여, 당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말라.

The Hundred Verses of Advice

파담빠 상계 · 딘고 켈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256쪽 | 13,000원 | 사륙판

